

사회

교통안전 사각지대 스쿨존

북구 무등초·남구 장산초교 앞 신호위반 가장 많아

북구 양산동 OB맥주 후문 앞 도로 '과속' 최다

광주시 북구 우산동 무등초교와 남구 주월동 장산초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 위반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매매상사입구로 올 들어 모두 4876건(신호 699건, 과속 4177건)이 단속됐다. 이 도로는 편도 3차선에 긴 직선 구간으로 만들어져 있어 운전자들의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광주지역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단속 건수는 신호위반 2만3842건, 과속 6만7870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에는 다기능(신호위반 과속 겸용) 카메라 97대, 과속카메라 48대 등 모두 145대의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있으며, 이 가운데 24개 구간에서 1000건 이상의 신호위반·과속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모두 4807건의 과속이 적발된 북구 양산동 OB맥주 후문 앞 제한속도 50km 도로를 운전자들이 60km 도로로 오인하고 제한속도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488건의 과속이 적발된 남구 주월동 백운고가입구는 운전자들이 긴 직선구간을 빠르게 달려 고가도로에 고속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허다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상황이다.

특히 북구 우산동 무등초교 앞 스쿨존은 올 들어 1471건의 신호위반이 적발돼 광주지역에서 신호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도 1332건에 달해 초등학생들이 위협

광주 시내 과속 최다 적발 구간 (2012년 1~6월)

Table with 2 columns: 구간 (Location), 단속건수 (Number of violations). Rows include 북구 양산동 OB맥주 후문 앞, 서구 유덕동 무인로 유덕C 입구, 남구 주월동 백운고가입구, 광산구 수원동 매매상사입구, 서구 유덕동 무인로 여흥교 부근.

을 받고 있다. 또 남구 주월동 장산초교 앞 스쿨존도 모두 1462건의 신호위반과 679건의 과속이 적발돼 스쿨존의 현실적인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과속과 신호 위반은 주로 차량 통행량이 적고 상태가 좋은 도로에서 야간에 상습적으로 이뤄진다"며 "주요 지점에 교통 경찰을 배치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물놀이 시설 폐해 속출

아르바이트생 14명 체임으로 고발

티켓 사용못한 수천명 환불 소송도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불법 운영된 초대형 물놀이 시설(본보 8월 24일자 7면 보도)에 따른 각종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7일 광산구 쌍암동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쌍암동 695-1번지 1만 2000여평 부지에 설치돼 있는 초대형 물놀이 시설이 불법으로 밝혀지면서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시설물을 불법으로 설치했던 이모(57)씨는 현재 사기혐의로 검찰에 수배 중인 상태에서 본보 보도에 따라 불법으로 설치된 물놀이 시설물 등은 철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운영원으로 채용됐던 14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25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광주지방노동청에 고발,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티켓을 1인당 6500원에 구매했던 8000여명 가운데 아직 티켓을 사용하지 못한 수천여명이 피해 당사자로 해당 소셜커머스에 항의하는 등 환불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억2000여만원 상당의 해당 시설물을 설치했던 이모(52·부산시 동래구)씨와 또다른 이모(53·북구 양산동)씨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밖에 해당 부지에 설치된 30여개의 부스를 임대했던 10여명도 피해를 호소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이 같은 불법 영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했지만 관계 기관 등의 제재가 없었으니 결국 수천명이 피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설레는 개학 27일 개학한 광주 북구 운암동 동운초교 1학년 한 학생이 새학기 교과서를 받은 후 즐거워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and tide information for the sea.

'학폭' 기재 보류 학교 직접 감사 검토 교과부-광주교육청 '갈등' 여전

일선 학교 혼란 우려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적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 광주지역 학교에 대한 직접 감사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육청이 학교에 지침을 내려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기록을 무기한 보류한 데 따른 압박을 카드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를 보류한 이후 교과부로부터 일선 학교 직접 감사 검토 등을 구두로 전달받았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직접 내려 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에 대한 직접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이날 교과부 지침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교육청을 압박하거나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기재지침을 철저히 하고 교과부에 촉구했다.

교과부 지침 발표 이후 입장발표를 미뤘었던 시 교육청은 지난 24일 고3을 제외한 모든 학교·학년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와 시 교육청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개학을 앞둔 일선 학교에서는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부분 학교들이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일반적으로 따르기 어려워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학교 자체로 결정하기가 매우 곤혹스럽다"라며 "교과부의 공문이 내려오면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예방·근절에 도움된다' 학생·교사 대다수

교사와 학부모, 학생 대다수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교장·교감의 86.6%, 학부모의 81.2%, 교사의 79.9%, 일반국민의 78.2%, 학생의 68.9%가 학생부 기재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는 1월20일부터 2월3일 사이에 일반국민과 학부모 각 500명, 교원 1100명,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시행했다.

/연합뉴스

선박 무단 입·출항 등 항만·공항 검역 '구멍'

보건당국의 선박·항공기 검역이 부실해 콜레라 등 전염병이 검역 망을 뚫고 국내에 들어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국립검역소 종합감사' 결과, 국내 항만과 공항에서 검역망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수검역소에서 급유·급수를 이유로 검역조사를 생략한 94척 가운데 7척이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입·출항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남구자활센터 '최우수' 선정 복지부 지원금 2850만원도

광주시 남구는 남구지역자활센터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최우수센터'로 선정돼 인증서와 28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남구 관계자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자활참여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결과"라며 "최우수센터 선정은 계기를 계기로 참여자들이 자기 사업을 최대한 빨리 가질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Jeju Travel' (제주여행) featuring 'New Mystery Jeju Trip'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with various travel packag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ansang Jeju' (환상제주).